

문화특이

김제시 농기센터, 종자생산 전문가 육성 교육과정 수료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종자생명산업특구 조성에 따른 민간육종연구단지에 필요한 기초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자생산 단기 교육을 지난 4월에 1차 과정을 시작해서 지난 1일 마지막으로 3차 과정까지 300명의 정예인력을 배출하였다.

이 교육은 종자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 및 재배관리 인력 수급과 급변하는 세계농업의 시장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고취로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종자생산 단기교육 과정은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등의 전문인력 및 육종 전문가를 초청하여 작물생리 및 재배, 병해충방제, 육종, 토양관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종묘업체 현장교육도 병행하여 교육생들과 종자생산업체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자생산 단기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으로서 우리지역 시민과 농업인들의 종자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며 종자생명산업 특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보건의료소 2곳 신축

정읍시가 최근 2개 보건 진료소의 신축을 마무리했다.

시는 국·도비 4억6,700여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4,200여만원을 더한 총 6억 900여만원을 투입해 신대인 양곡과 백산 보건진료소를 건립했다.

동 당 149㎡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된 보건진료소는 진료실과 대기실, 건강증진실, 휴게실과 함께 열선침대, 핫팩, 쿠션안마, 발 마사지기 등의 최신 의료장비를 갖췄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한층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대기실도 쾌적하게 꾸며져 진료대기 시간을 보다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신대인 양곡보건진료소 준공식이 지난 2일 현지에서 있었다.

준공식에서 김생기시장은 "신축된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신대인 백산보건진료소 준공식은 오는 9일 있을 예정이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보건진료소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고3 수험생 대상 평생학습교실 수강생 모집

김제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12월 9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그간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 평생학습관은 수학능력시험 이후 약 3개월간의 잉여시간을 활용하여 고3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수험으로 인해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취미활동 등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단기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집에서도 맛있게 즐기는 커피 바리스타, 무인항공시스템 드론 맛보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네일 배우기, 사회초년생 메이크업 강좌 등 4과목 90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다가오는 12월 12일부터 2017. 2. 17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 기수별 효율적 운영을 할 계획이며 1기수 당 5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수강료는 무료(재료비 별도)이다.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고, 자세한 문의는 평생학습관 063) 540-2976~2980으로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수서발 고속철, 정읍역 정차

수도권 관광객 교통편의 증진 도모 정읍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오는 9일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이하 SRT)가 정읍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속철도는 상행 27회(SRT 13회, KTX 14회)이고, 하행은 24회(SRT 9회, KTX 15회)이다.

SRT(정읍→수서)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3만3천800원이다.

SRT(정읍→수서)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3만3천800원이다.

SRT(정읍→수서)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3만3천800원이다.

“마음을 합하면 큰 화합을 이룬다”

이건식 김제시장, 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서

김제시에서는 지난 2일 김제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김복남 의원 등 2명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고,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진실한 파트너로서 새만금중심도시의 큰 틀을 세우는데 길고도 험한 여정을 함께 해왔다"며 "마음을 합하면 큰 화합을 이룬다"는 보합대화(保合大和)의 사자성어를 제시하면서 현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역동적인 김제를 만들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먼저 김복남 의원이 질문한 "신축 공도장 운영"에 대해서는 흥성정전

경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SRT 개통과 운영 조정을 앞두고 올해 코데일 분사 2회, (주)SR 2회, 국토교통부 1회 관계부처와 기관을 방문해 정읍역 정차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SRT의 정읍역 정차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1일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의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등 종합시험 운영을 마무리하고 최종 공정 점검을 한 결과 오는 9일 개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철도 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 검증시험 기간(8월 8 ~ 10월 24일) 980여 회에 걸쳐 수



도권 고속열차(SRT)를 투입해, 최고 시속 300km로 운행하며 노반과 궤도, 전력, 신호 등 108개 항목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11월 한 달은 수서~부산/목포 구간에 1천 500여 회의 영업시운전 열차를 투입해 열차 운행 체계 적정성과 관련 시스템, 열차 이용 편리성 등 63개 항목을 점검했다.

한편 SRT는 지난 2011년 5월 공사가 시작돼 지난 3월 노반·궤도·건축·전기·통신 등 전 분야 주요 공사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 "산단 금융대출금은 1,600억원 중 660억원을 상환하고 금년에 유치된 7개 기업의 분담대금을 받으면 실제 대출금 잔액은 810억원이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과 로열캐닌 등 유수기업 유치로 큰 성과를 이룬 만큼 앞으로도 시행사인 지앤아이와 함께 특단의 노력으로 기업유치와 미분양 토지매입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두기 의원의 "해양농경역사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부진이유"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5억원의 사업비로 조성계획인 청하 백련단지는 민간투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주평통 부안군협 정기총회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 2016년 4분기 정기총회가 2일 이영식 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오세웅 부안군의회 의장 등 4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중사업 보고 및 2017년 주요사업 설명 등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영식 협의회장(사진)은 "올 한해 동안 연중사업계획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들의 성



원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새로운 2017년에도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 통일 앞에 한 발 앞서 다가가는 부안군 협의회가 되자"고 말했다.

특히 이 협의회장은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일을 염원하는 열정의

결과로 전년도 활동평가회 및 신년인사회,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워크숍, 평화통일 열원 어울림 마당, 통일안보 강연회, 중·고등학생 역사 통일 골든벨 등 많은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협의회장은 "연말연시 북한이 탈주민 및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위원들의 참 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줄포 생태공원 탐방로 완공

부안군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줄포 만갯벌생태공원에 1.2km의 생태탐방로 조성이 마무리됐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줄포만갯벌,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있는 생태공원으로 올해 18만명의 탐방객이 찾은 부안의 명소가.

생태공원 탐방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으며 여름에는 푸르고 가을에는 노랗게 물드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갈대숲과 환호한 서해바다 나즈, 줄포만갯벌의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됐다.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갯벌생태공원의 활성화에 일조하며 변산·하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줄포·진서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줄포습지 및 생태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 사업과 연계해 줄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줄포면 가로경관 정비, 주민센터 조성 등으로 실시 되는 줄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이 투입돼 실시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부안해안권 관광벨트의 첫 출발지인 갯벌생태공원이 활성화되면 진서, 변산, 하서, 계화로 이어지는 해안권 관광벨트가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명품 해양관광도시 부안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들”

김제시 사회복지사 전진대회 개최

김제시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장덕상)는 지난 2일 오후 5시 김제시청에서 체육관에서 "제5회 김제시 사회복지사 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이건식 김제시장, 김중희 국회의원, 내병문 김제시의회 의장, 이춘섭 전라북도사회복지사 협회장과 민·관 사회복지사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사회복지사 10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김제시장상에는 김제시사회복지관 정훈의 3명이 수상하였으며, 국회의원상에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이미영 외 1명, 김제시의회 의장상에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최규호 외 1명, 전북사회복지사 협회회장상에는 오성수의 1명이 수상하였다.

장덕상 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행사가 사회복지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어려운 근무여건이지만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민·관 사회복지사의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 수혜자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 김제시민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데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앞장서 주길 바라며,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시민은 더욱 행복해 진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달이 깔금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대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생주
Premium Obdi Wine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 750ml 1ea/12% |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 375ml 5ea/13% | GIFT SET 6. 500ml 4병/2ea/12%, 부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